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⑭ 좋은 찻물을 위해서

‘명천’ 위해 선현은 노력 아끼지 않았다

〈茗泉〉

차를 다루는 일은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키는 오묘한 작용이 있다. 요즈음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에는 따뜻하고 싱그러운 녹차가 주는 위로가 큰 힘이 된다. 이런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중요하여, 초의 선사도 〈동다송〉에서 “물은 차의 근본(體)”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기에 산간(山間)에 살면서 명천(茗泉)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면, 차의 기미(氣味)를 즐길 수 있는 제일 조건을 구비한 것이므로, 예나 지금이나 차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명천을 구할 수 있는 청복(淸福)을 소망하는 것이리라.

얼마 전 청나라 초기 인물 육정찬(陸廷燦)이 편찬한 〈속다경(續茶經)〉을 읽다가 옛사람들이 좋은 물을 얻는 방법의 묘미를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이 하도 진지하고 자세하여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속다경〉을 편찬한 육정찬은 어떤 인물인가. 그의 생몰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청나라 초기의 인물로, 강소 가정 출신으로 알려진다. 그의 호는 만정(幔亭), 추소(秋昭)라는 자를 썼으며 시문에 능했다. 평소 차를 매우 사랑하여 세상에서 ‘다선(茶仙)’으로 칭송됐다. 그가 편찬한 〈속다경〉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당(盛唐) 때 육우(陸羽)가 저술한 〈다경〉의 체재를 모방해 구성했다. 육우의 〈다경〉이 중국 차 문화의 맹아기로부터 당 중기까지 차와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라면, 〈속다경〉은 당 중기로부터 청초(淸初)까지 차에 관련된 문헌을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속다경〉은 중국 차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차 문헌이라고 하겠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옛사람들이 명천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니 〈속다경〉의 ‘송우재의 물을 운송하는 약조(松雨齋 運泉約)’에 자세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혜산천의 물 운송은 물 단지마다 뱃삯과 인력 비용을 은(銀) 3분으로 상환한다. 물 단지, 물동이 값과 물동이는 대개 자신이 준비하므로 계산하지 않는다. 물이 도착하면 각 벗에게 급히 알려 사람들이 스스로 가져가게 한다. 매달 상순(10일경)에 은전을(비용을) 거두고 중순(20일경)에 물을 운송한다. 매달 한번 물을 가져오면 맑고 새로운 물을 가져올 수 있다.(運惠水, 每罈償舟力費銀三分. 水罈, 罈價及罈 盖自備不計. 水至走報各友 令人自擡　每月上旬斂銀 中旬運水 月運一次 以致淸新)



명나라 시기 문징명이 그린 ‘품다도’.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 “물은 차의 근본”… ‘속다경’에 찻물 공수 노력 확인
> 생수 보편화된 현대엔 좋은 찻물 얻기 매우 어려워

윗글의 송우재는 명대의 문인 이일화(李日華, 1565~1635)의 당호로 짐작된다. 그의 품다와 품천(品泉)에 관한 견해는 〈죽란다형(竹嬾茶衡)〉에 자세히 서술했다. 그러므로 그는 찻물의 중요성을 알고 혜산천(惠山泉)을 가져와 신선한 샘물을 공급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물을 공수하기 위해 필요한 물동이를 각자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물 운송비용은 뱃삯과 물을 운송하는 인력 등으로 제한하여 각각 은(銀) 3분을 각출했다. 물이 도착하면 각자에게 빨리 통보하여 가져가게 했다. 이 또한 물 운송의 이동 속도를 고려하여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며 다른 한편으론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물 운송 약조에는 매월 초에 돈을 거두고 중순에 물을 운송하여 매달 한번 정도 가져오면, 언제나 신선하고 맑은 찻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 하겠다. 이밖에도 물을 원하는 자는 (약조) 책 한쪽에 물동이 숫자를 쓰고 편의대로 약조를 써둔 책에 기록하여 물동이 숫자에 따라 은전을 맡기는 등 서로 간에 필요한 물동이 개수를 정확하게 남기도록 했다(願者 書號於左 以便登冊 併開　數 如數付銀). 그가 인식한 차의 가치는 바로 삭막한 마음에 윤기를 더하며 막히고 답답한 것을 씻어낸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명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液瀝易枯 滌滯洗蒙 茗泉不廢)

결국 명차에는 좋은 차에 걸맞은 물을 만나야 신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차의 공력을 얻어, 마침내 물외(物外)를 소요하는 것과 견줄 수 있는 경지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차를 즐기는 일이나 명산을 주유하는 일은 풍진 세상을 멀리할 수 있는 뗏목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차는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유용한 정신음료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도 차를 즐기며 유통되는 생수를 쉽게 선택한다. 실제 생수의 선택 폭은 넓고도 다양하다.

그러나 차에 알맞은 물을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다. 왜냐하면 신선한 물을 구하기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수가 오래된 물이기 때문이다. 대개 유통 생수는 채수한 후 15일에서 1개월이 지난 것이거나 심한 경우엔 2~5개월이 지난 생수가 유통된다. 그러므로 샘물을 떠 용기에 담은 후 대략 2~3일 만에 공수될 수 있었던 명대나 송나라, 고려 시대나 조선 전 후기에 비해 신선한 물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어쩌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차에 알맞은 샘물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청복(淸福) 중에 청복이라 하겠다. 더구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동이는 천연 소재이지만 현대에 유통되는 물통은 플라스틱 소재이다. 편리할 수는 있지만, 싱그러운 물의 정기를 보존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고 기세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묘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자신이 이런 물을 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 아니면 좋은 물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인데, 이는 도시에서도 오묘한 차의 청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㉘

1. 중국 선종의 기원이 되는 인물은?

① 남전 ② 달마 ③ 마조 ④ 임제 ⑤ 혜능

해설 : 중국 선종의 기원이 되는 인물은 초조달마대사이다. 달마 이외에 시대순으로 육조혜능, 마조도일, 남전보원, 임제의현 순이며, 선종 내부에 동명이인들도 있으나 이들이 대표적으로 유명하다.

2. 아비달마 불교의 실유사상을 타파하고 ‘중도의 진리’를 주장한 인물은?

① 용수 ② 달마 ③ 우팔리 ④ 수자타 ⑤ 현장법사

해설 : 아비달마 불교의 실유사상을 타파하고 ‘중도의 진리’를 주장한 인물은 용수이다. 그의 대표저작인 〈중론〉은 아비달마 불교의 실유사상을 공사상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있으며, 〈중론〉의 제목 명은 공사상에 입각한 중도의 입장을 논술한다는 의미이다.

3. 중국에 최초로 전해진 불교 경전은?

① 화엄경 ② 법화경 ③ 유마경 ④ 반야심경 ⑤ 사십이장경

해설 : 중국에 최초로 전해진 불교경전은 가섭마등, 축법란이 번역하였다고 전해지는 〈사십이장경〉으로 알려져 있다. 번역자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사십이장경〉의 전래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4. 『중론』, 『백론』, 『십이문론』을 번역하여 삼론종을 성립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은?

① 현장 ② 안세고 ③ 백법조 ④ 축법호 ⑤ 구마라집

해설 : 〈중론〉, 〈백론〉, 〈십이문론〉은 용수 및 용수의 제자가 제작한 논서들로 중관학파에서 중요하게 취급한 중관학 논서이다. 중국에 중관학파의 논서를 전한 인물은 구마라집으로 중국에서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이 세 논서를 중관학파의 이명(삼론종)으로 사용하였다.

5. 당나라 현장법사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법상종 ② 서유기 ③ 법화경 ④ 역경성자 ⑤ 대당서역기

해설 : 삼장법사 현장은 법상종의 논서인 〈유가사지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중국 당나라에서 인도로 유학하였고, 이후 중국에 돌아와 자신이 인도에서 듣고 겪은 바를 엮어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남겼다. 또한 법상종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교경론을 번역하여 그를 역경성자라고도 하며, 현장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소설이 〈서유기〉이다. 〈법화경〉은 현장과 쌍벽을 이루는 역경승 구마라집의 번역으로 유명하다. 현장은 〈법화경〉을 번역하지 않았다.

6. 중국 천태종과 관계가 깊은 인물은?

① 도선 ② 도작 ③ 혜능 ④ 지의 ⑤ 현장

해설 : 천태종의 개창조는 천태지자대사 지의이다. 그 외 각각은 율종의 도선, 정토종의 도작, 선종의 혜능, 법상종의 현장이다.

7. 중국 선종의 다섯 종파인 오종(五宗)이 아닌 것은?

① 임제종 ② 운문종 ③ 달마종 ④ 위앙종 ⑤ 조동종

해설 : 중국 선종은 육조혜능 이후 오가칠종으로 분화된다. 문제에서 오종이란 오가칠종에서 오가를 말하는 것으로 오가는 위앙종,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이다. 달마종은 선종 전체에 대한 이명, 혹은 일본승려인 능인이 임제종 양기파의 한 갈래로 세운 종파를 말한다.

8. 석가모니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자들의 의복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부잣집에서 좋은 옷을 얻어 입었다.
② 입던 옷이 조금만 낡아도 버리고 새 옷으로 입었다.
③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옷을 전혀 입지 않았다.
④ 옷을 시장에서 사 입기 위해 항상 돈을 가지고 다녔다.
⑤ 다른 사람들이 입다가 낡고 더러워져 버린 옷이나 시체를 싸다 버린 옷을 꿰매고 빨아서 입었다.

해설 : 부처님 당시의 출가수행자들은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소유만이 인정되었다. 특히 옷과 관련해서는 분소의라하여 다른 사람이 버린 옷, 장례 때 쓰인 시체와 관련된 직물만을 사용하여 만든 옷을 권장하였다. 그럼으로 좋은 옷, 새 옷 등을 멀리하였으되, 옷을 전혀 입지 않지는 않았으며, 이는 다른 종교인 자이나교의 전통이다.

정답 : 1. ② 2. ① 3. ⑤ 4. ⑤ 5. ③ 6. ④ 7. ③ 8.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